

美國「教育大統領」부시는 과연 教育改革에 成功할 것인가

○ 高校生の 25%가 中退, N.Y. 등 大都市에서는 3名中 1名이 高等 학교를 卒業하지 못했음

○ 미네애플리스의 公立高校에는 아이를 낳 女學生을 위해서 校內에 탁아소를 설치 운영 중

○ 미국 고교생의 학력 평가 결과 先進 6개국 중에서 수학과 6등, 과학은 5등

○ 신문을 읽지 못하고, 영어를 읽고 쓰지 못하는 成人이 약 2,500万 명(10%).

이것이 美國 教育의 실상이다.

「教育大統領」이라는 기치 아래 부시 大統領은 “2000년 美國 教育 전략”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教育의 쇠퇴는 다음 세기에서 미국의 領導力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教育의 황폐와 위기를 자각하게 된 것은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 人工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올렸을 때와 '83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위시한 미국의 문제를 다룬 「危機에 선 國家」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그리고 이번이 세번째이다.

세계 최대의 누적 채무국으로의 전략, 산업 경쟁력의 상실을 배경으로, 경제 문제와 교육 문제를 연계시켜 국민의 학력 향상과 교육의 중요성을 모토로 내건 2000년까지의 국가 교육 목표(National Goals)는 全美 50個 州知事의 모임에서 합의된 바 있다.

「高校 졸업의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 「미국 학생의 수학과 과학 실력 수준을 세계 1위로 향상시킨다.」 「모든 成人이 읽고 쓸 수 있게 文盲率을 0으로

한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目標에 따라 '92년도 정부 예산 중 「수학과 과학 교육」이란 항목에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19억 달러의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다.

高校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단 발부된 자동차 면허증을 취소하는 苦肉之策을 쓰는 州도 생겼으나, 高校 教育의 문제가 向上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이다.

이는 미국 教育의 기본이 個人主義와 地方分權主義라는 원칙 아래, 미국 전국의 1,600개의 教育구가 각각 독자적인 제도와 교과 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教育 자치제의 현실, 少數 민족의 증가, 教育 예산의 압박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教育 부문 지출에서 연방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6% 정도이며, 나머지를 州나 市の 자치 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UNESCO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高等 학교까지의 教育에 투자되는 자원의 국내 총생산(GNP)에 대한 비율은 미국이 16개 나라 중 14번째로, 미국의 教育 개혁은 재정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다.

“교육 적자는 무역 적자나 재정 적자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미국 教育 장관)라고 주장되고 있으나, 教育 개혁을 위한 재정면의 어려움은 재정 적자 해소보다 결코 쉽지 않은 현안 문제로 남아 있다.